

원로문화예술인 소식지

세상을 넓히다 '화가 조규만'

그림 잘 그리는 학생으로 소문났던 조규만 선생님

1937년 일제강점기에 만주에서 태어났으며, 발해초등학교를 다니다가 2학년 때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. 해방된 후 가족들과 함께 중국 두만강가에 있는 연길의 위성도시 '도문'으로 떠나셨고, 그곳에서 두 달 동안 지내시다가 청진, 원산을 거치는 긴 여정을 통해 남한으로 내려와 목포에서 작은 집을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. 가난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기에 초등 학교 선생님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범학교를 다니셨으나, 그림을 무척이나 잘 그린다고 소문이 나게 되어 처음 목표와는 다르게 홍익대학교 미술학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.



이미지 출처 : 조규만 선생님

집에서는 가장으로 밖에서는 화가로

조규만 선생님은 취직이 쉽지 않아 신문사 문화부에서 소설 삽화를 그리는 등 들어오는 모든 일들을 거의 다 하셨습니다. 조선여자초급대학 강사로 3년 동안 지내면서 교수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했지만, 학교에 데모가 한창이었던 시절이었기에 수업을 하지 못하였고 자연스럽게 수입도 없게 되었으며 가장으로 그리고 화가로 가난과 싸우셔야 했다고 합니다.

예술나무씨앗을 키워주세요.

예술나무를 키워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
우리나라 문화예술이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.

문화예술에 후원하는 당신도 예술가입니다.

병마와 싸우는 와중에도 놓지 않는 그림

화가로서 살아가기가 무척 힘든 시기였으나 쌀을 사기 위해 전람회가 열리면 그림을 판매하기 위해 죽을힘을 다하여 그림에 매달렸었다고 합니다.



이미지 출처 : 조규만 선생님

조규만 선생님은 58살에 뇌출혈로 혈관이 터지면서 없어서는 안 될 오른손의 신경도 함께 잃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병마에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매일 아침 창문 앞에서 그림을 그리신다고 합니다.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 오래하지는 못하지만 매일 두세 시간은 그림에 몰두하시고, 왼손으로 그리는 것도 적응하여 누구보다 꼼꼼하게 작품을 창작하고 계신다고 합니다. 조규만 선생님은 예술가가 무엇인가를 창조해 낸다는 것은 모든 것의 총 집합이라고 생각하셨으며, 그렇기에 화가들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.

주요경력

- 한국미협 경기부지회장
- 고양문화원 문화담당 이사
- 경기미술대전 운영위원
- 고양미협 고문
- 고양시 문화상 수상

주요작품

- <고양예술제>, <신구상 청초회전>, <갤러리환개관 기념전>, <문우회전>, <고양미협전>, <고양세계꽃박람회 기념 초대전>, <오늘의 흐름전> 기타 개인전 12회